

東大 일산에 약학관 착공



최근 약학대 신설을 허가 받은 동국대가 일산에 약학관 및 종합강의동을 착공하고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4월 29일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부지에서 약학관·종합강의동 착공식(사진)을 개최했다.

2011년 8월 사용될 약학관은 연면적 2만 2000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설된다. 건물 내부에는 강의실과 실험실, 교수연구실이 들어서는, 임상약학 특성화 교육을 고려한 설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종합강의동은 연면적 6천 4000㎡, 지상 5층 규모로 건설된다. 주로 강의실 및 세미나실, 사무실, 교수연구실로 활용되며, 2011년 2월에 완공된다.

이 사장 정권 스님은 차사에서 "금일 약학관 등 신축은 종단·법인·학교가 하나돼 이룬 약학대 신설 선정이라는 큰 업적이 이룬 결

과"라며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1단계 사업이 동국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분과와 생명과학분과를 고양시에 뿌리내리는 시발점이라면, 금번 2단계 사업은 약학대학 신설이라는 도약을 밟고 한층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교 총장은 식사를 통해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은 동국대가 성장동력 분야로 집중 육성 중인 바이오분야 특성과 고양캠퍼스 시대를 활짝 열어 명문사학의료의 융비라는 동국인의 꿈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2020년까지 17만㎡ 규모의 캠퍼스 건립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 1단계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착공식은 의생명과학캠퍼스 2단계 계획에 따른 것이다. 8월에는 한의학과 및 산학협력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조동섭 기자

정토사회 만들면 '통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 포럼서 백낙청 명예교수 강의

"한반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통일은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중도를 통한 정토사회 구현'에서 비롯됩니다. 단계적 통일, 대중이 이끄는 중도적 통일을 위한 시민의 깨어있는 자세를 위한 종교계의 사회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4월 27일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백낙청 교수는 남북관계와 민주화의 긴밀성, 시민참여형 통일을 위한 종교계의 주도적 역할을 역설했다.

백낙청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정은 민주화, 내부개혁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별한 통일운동이 필요치 않다. 종교계의 4대강 반대 운동과 같은 민주화의 길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낙청 교수는 세계적인 냉전체제 종결과 동시에 분단체제의 불안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대립, 남북분단체제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는 세력의 적대적 상호 의존·공존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소수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는 현 정권의 반민주적 정치, 대북강경책은 민주주의에 거슬러 나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백낙청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은 진전적이고 단계적 통일, 중간단계를 거치는 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백낙청 교수는 불교의 중도적 자세도 강조했다.

"진보·보수, 통일·반통일세력 같은 이분법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동의도 얻기 힘들다.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변혁적 중도 사회다. 좌우의 단순논리를 넘어 중도를 찾아야 하며 중도노선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 중도란, 유무에 집착하지 않는 것, 한국사회의 편벽, 편향된 사고나 노선을 하나씩 비판하면서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나 중도세력이 커졌을 때 한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 현 정부에 대한 편향된 자세와 국민들의 탐욕, 오만을 지적했다. 백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같이 국토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보수인가? 현 정권은 보수정권도 중도 실용정권도 아닌 괴물스러운 정권이다. 어떤 괴물인지 연구를 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오만한 자세가 이명박 대통령만의 것인가? 우리가 뽑은 괴물에 대한 인식과 참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news.com

사형수도 우리 책임 "사형제 반대"

불교·천주교 등 인권위 사형제도 토론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은 4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분석 및 사형제도 범외적의 관계'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허일태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한 헌법 분석' △홍기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미국 사형제도에서 억제효과와 여부에 대한 법경제학적 동향'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형의 범죄억제효과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발표했다.

불교인권위원회 명진 스님(관음종 본원사 주지)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결국은 모두의 책임이다. 불교계에는 생명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비실현 차원에서 사형제를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달라이 라마 中 지진 피해자 위해 기도

중국 북서부 칭하이(青海)성 위수현에서 4월 14일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도법회가 4월 27일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에서 14대 달라이 라마(텐진 가초)의 주도로 열렸다. 강진 발생 후 2주에 해당하는 이날 법회에는 17대 가르마파(갈왕 가르마파)와 티베트 망

명정부 인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통통신에 의하면 강진에 의한 사망자는 2000여 명, 1만 여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질적으로 이번 지진 피해자의 97%는 티베트 인으로 공식 집계됐다. 달라이 라마는 2시간에 걸친 기

도에 앞서 중국 내 티베트 자치구(TAR)의 티베트인 구조와 구호에 힘쓴 중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직접 재난 지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추모법회는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에서 6월 1일까지 49재로 진행된다.

인도 다람살라 = 가연숙 객원기자

중생과 변화 함께 해야 '현대화'

불교 심리학 전문가 서광 스님 주장

불교 심리학 전문가인 서광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사진)은 4월 28일 대한불교진흥원 다보원에서 대한불교진흥원, 법보신문사가 주최한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심리적 문화적 접근' 포럼에서 "불교의 현대화는 중생의 변화에 따라 불교도 함께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스님은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불교상담심리전문가 양성기관, 프로그램 개발로 '현대판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광 스님은 "현대판 조사, 불교상담심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자격 제도 안에서 경·술·론 삼장을 심리 치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연구방

법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불자들이 하 여금 어느 경전을 읽거나 공부했는지보다는 경전을 읽고, 어떤 심리적 증상이 좋아지고 치유됐는지, 그래서 얼마나 인격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100자 뉴스

천태종 中 茶문화제서 한국다도 선보여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4월 27일~5월 3일 중국 베이징 영광사에서 열린 '제9회 팔대처 중국 원림 차문화제'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 천태종은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장 세운 스님 등 대표단 100여 명이 참석해 고려황실다법 시연, 사물놀이 공연, 양금(洋琴) 연주 등을 선보였다. 팔대처 차문화제는 중국차업유통협회, 중국국제차문화연구회 등 관련단체들이 차문화 보급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차축제다. 노덕현 기자

인도 불교로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

인도가 불교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교류강화에 나섰다.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4월 25일 인도정부가 27일 베이징서 열린 인·중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서 중국정부 측에 불교 성지 모형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인도정부는 양국이 화해와 협력에 나서자는 의미로 자국 불교 성지 '그레이트 스투파'와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한 '녹야원(鹿野園) 등 모형을 전달했다. 최근 중국 측에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지원 등을 요청한 인도정부는 이번 선물 전달에 앞서 중국 최초 사찰인 위양 바이마사(백마사) 인근에서 모형을 제작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日 조동종 강제징용자 유골 105구 발견

아사히 신문은 4월 23일 일본 조동종 종무처가 실시한 강제징용 외국인 유골조사 결과 총 105구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조동종 종무처는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2005년 11월부터 기후현 사찰 등에서 조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한국 '태평양전쟁희생자보환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한국인 희생자 유골 37만여 구에 대한 송환 운동을 펼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부인사 선덕여왕 송모제 봉행

신라 선덕여왕을 추모하는 제24회 선덕여왕 송모제가 4월 28일 대구 부인사주지 종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과 배근희 선덕여왕 송모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불법으로 난국을 극복한 선덕여왕의 지혜와 업적을 되새겼다. 주지 종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최대 흥기인 신라시대의 제사양식이 복원되고, 선덕여왕의 본래 면목이 잘 알려진다면 불교 포교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창단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단장 안병욱)이 4월 24일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창단했다. 충북지역단은 현재 14개팀, 115명이 활동하고 있고, 제15기 포교사로 52명이 연수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충북지역단은 청주시를 중심으로 보은, 옥천, 영동, 충주, 제천, 단양 등 지역포교에 나선다. 안병욱 충북지역단장은 "종단을 의뢰하고 스님들을 보필하며 포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기총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반대 나서

정부와 대구시, 동화사가 동화사 통일대불 지하 등 일대에 조성하는 불교테마공원에 대해 대구지역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기총)는 비상대책위를 조직했으며 7일 대구시를 향의방문해 불교테마공원 반대성명을 전달했다. 대기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연계해 시청 앞 시위 등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들이나 불자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보다든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뵈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색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심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본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야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경, 의상조사법성경,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발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법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